



2020년 3월 18일

제목: 목회적 돌봄을 위한 편지 - 보로니아 파크 연합교회 교우들과 그 가족들을 위하여 (1차, 2020년 3월)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된 여러분들께,

제가 수차례 교회 예배에서 불렀던 찬양을 한 곡 먼저 부르며 이 편지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Don't be afraid, my love is stronger,
my love is stronger than your fear.
Don't be afraid, my love is stronger,
and I have promised,
promised to be always near.*

(John L. Bell)

지난 몇일 동안 고민하고 머뭇거린 시간을 보내고 나서야, 제가 여러분께 이 목회적 돌봄을 위한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19가 대유행인 이 때,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 혹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난 몇일 동안 교우들을 연락하고 만나면서, 저는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보내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오늘 (3월 18일) NSW-ACT 주총회로 부터 강력한 권면을 받았습니다. 각 교회는 집회로 모이는 일을 삼가해 달라는 권고였습니다. 이에 따라, 곧 저희 교회 역시 주일 예배와 교회 활동에 대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때는 우리가 기도와 마음으로 서로를 붙들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와 가정들, 친구들과 이웃의 안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건강과 영혼, 그리고 사람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보로니아 파크 연합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의 마지막 때까지 주님의 도움으로 무사히 지나갈 것임을 확신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역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이 간절히 필요한 한 인간입니다. 주님께 소망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를 주님과의 더 긴밀한 관계로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바램이 사재기에 대한 뉴스와 확진자 수의 증가, 그리고 저 스스로가 이로부터 피하고 싶어하는 연약한 모습으로 인해 도전받아 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소망을 찾는 것이 제게 쉬운 일이 아니었고, 그래서 그 동안 고전하고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소망의 단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아주 작지만 강한 소망의 단서로 인해서 이 세상은 살만하고 지속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그분들은 자기 격리중이거나 홀로 근심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전화를 걸어주었습니다. 그분들은 계속해서 신실하였고, 서로를 언행으로 격려하며 주어진 교회의 선교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분들이 마치 성령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듯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이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까? 저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과 비록 미력하지만 신실할 수 있다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기도와 함께, 저는 새롭고, 창의적이고,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배하고 서로를 돌볼 수 있는 방법을 공부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 지려면, 바라기는 이런 일에 열정과 기술이 있는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함께 예배 자료를 개발하여 편지나, 이메일, 메시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하므로써,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이 믿음의 여정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소망합니다.

목회적 돌봄은 우리의 사역에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이 어렵고 불분명한 시기에 서로에게 목회적 돌봄을 제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교회의 장로님들과 교회의회 회원들과 저는 전화통화, 편지나 카드, 메시지나 이메일로 이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번 일로 인해서 폐쇄될 양로원 등에 홀로 지내시는 분이나 댁에서 배우자나 자녀 없이 홀로 지내시는 분들을 더욱 염려하게 됩니다. 부디 여러분께서는 서로서로 연락을 취해 주시고, 혹시 어려움이 있다면 제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이룬 지체들입니다. 함께 모여 성찬을 나눌 때나 근심 가운데 홀로 격리되어 있을 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음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께서 저를 목사로 불러 섬기도록 해 주셨으니, 제가 온 맘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실제적인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유명한 요리사인 Adam Liaw 씨는 최근에 자신의 할머니의 이야기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할머니께서는 어려운 시기가 올 때면, 물건을 사놓는 대신, 텃밭에 야채를 기르셨다고 합니다. 그의 할머니가 올았습니다. 그분께서는 그 텃밭에서 야채를 기르며 삶과 인간에 대한 소망을 발견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시기가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따름에 있어 우리의 마음과 그 중심을 헤아려 보는 시기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라는 것과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그리스도와 또 이웃과 함께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두려움보다 크고 강합니다.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었으니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저와 이야기 나누고 싶은 걱정이나 문제가 있다면 이메일이나 전화로 연락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연승재 목사

이메일: minister.bp.uniting@hotmail.com

핸드폰: 0413 837 721

사무실: 02 9809 2215